

말브랑슈의 '필연적 연결의 부재'

(No Necessary Connection) 논증에 대한 고찰

김성연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

1. 서론

기회원인론은 종종 데카르트 이원론의 심신상호작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제시된 것처럼 소개되곤 한다. 전적으로 상이한 실체인 정신과 물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기계장치의 신(deus ex machina)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회원인론은 단순히 이원론적인 체계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실체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이론은 아니다. 그보다는 당대의 철학적 배경 안에서 인과 관계의 본성에 대한 전반적인 철학적 숙고를 통해 구성된 것이었다.¹⁾

전능한 신이 세계를 창조했을 뿐 아니라 피조물들의 존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신학적 전제는 17세기 당시의 그리스도교 신학자들과 유신론적 철학자들 사이에 널리 공유되고 있던 생각으로서 자연에서의 인과 작용에 대한 논의의 배경을 이루고 있었다.²⁾ 말브랑슈는 이러한 철학적 환경 속에서, 특별히 자연의 대상들이 어떤 본성이나 힘, 또는 활동의 내적인 원리와 같은 것을 가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인 자연 이해를 논박하고자 했다.³⁾ 그는 데카르트주의에서의 실체들에 대한 분석과 인과 관계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 숙고

1) Nadler, 2000, 116.

2) Ibid., 112.

3) Ibid., 116.

를 통해, 자연의 과정에서 오로지 신만이 진정한 원인이고 피조물들은 기껏해야 기회원인일 뿐이라는 결론을 끌어낸다.

『진리의 탐구』(*De la recherche de la vérité*)에서 말브랑슈는 기회원인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소위 ‘필연적 연결의 부재’(No Necessary Connection, 줄여서 NNC) 논증을 제시한다.

내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참된 원인이란 그 원인과 그것의 결과 사이에서 정신이 필연적인 연결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신은 오로지 무한히 완전한 존재의 의지와 그것의 결과들 사이에서만 필연적인 연결을 발견한다. 그러므로 오로지 신만이 참된 원인이며, 신만이 물체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다.(SAT. 6.2.3, N96)⁴⁾

이 논증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 (i) 참된 원인이란 그것과 그것의 결과 사이에서 정신이 필연적인 연결을 발견하는 것이다.
- (ii) 정신은 오로지 무한히 완전한 존재의 의지와 그것의 결과들 사이에서만 필연적인 연결을 발견한다.
- (iii) 그러므로, 오로지 신만이 참된 원인이며, 물체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i)은 참된 원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고, (ii)는 (i)에서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오로지 신의 의지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iii)은 이로부터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결론이다. 이 논증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논증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들 사이에는 불일치가 있어왔다. (i)에서 말브랑슈가 참된 원인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필연적인 연결”의 성격은 무엇인가? 그러한 필연성을 참된 원인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가? (ii)를

4) 영역본으로부터 재번역하였으며 대본은 Nicolas Malebranche, *Philosophical Selections*, ed. by S. Nadler (Indianapolis: Hackett)을 사용하였다.

정당화하는 논리는 무엇인가? 이 정당화는 설득력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과 관련해서 이 주제에 대한 논점들은 다소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NNC 논증'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 논쟁들을 정리하면서, 필자 나름의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 2절에서는 먼저 말브랑슈가 'NNC 논증'의 (i)에서 요구하는 필연성의 성격과 이러한 요구의 정당성에 대한 내들러(Steven Nadler, 2000)의 입장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어트(Walter Ott, 2008)의 비판을 검토할 것이다. 내들러는 말브랑슈가 (i)에서 요구하는 필연성이 논리적 필연성이라고 분석한 뒤에, 말브랑슈가 그의 논쟁 상대방들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인과적 필연성과 논리적 필연성을 뒤섞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어트는 말브랑슈의 논쟁 상대방들 역시 인과 관계에서 논리적인 필연성을 요구했으며, 따라서 오히려 말브랑슈의 논쟁 상대방들에 대한 내들러의 이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어트가 제시하는 근거들은 내들러의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고 있지 못하다. 2절에서는 내들러와 어트의 주장들을 분석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런데 이것은 전제 (i)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지 (i)의 해석에 대한 논쟁은 아니다. 내들러와 어트 모두 (i)에서 말브랑슈가 인과 관계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필연성이 논리적 필연성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i)에서 요구하는 필연성의 성격 역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석재(2008)는 (i)에서 요구하는 필연성을 논리적 필연성으로 해석하지 않으며, 이러한 해석 때문에 (ii)의 정당화 논리를 내들러와 다르게 구성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내들러의 해석에 의하면 말브랑슈는 전능한 신조차도 다르게 할 수 없는 성격의 필연성인 논리적 필연성이 자연에 있다는 주장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석재의 해석에 의하면 그런 고려는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3절에서는 논증에 대한 내들러와 이석재의 해석을 살펴보고 이석재의 해석에 대한 내들러(2011)의 비판을 검토함으로써 전제 (i)에 대한 두 사람의 해석의 차이가 전제 (ii)를 정당화 하는 방식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이석재와 내들러는 모두 말브랑슈가 전제 (i)에서 절대적인 필연성

을 미리 요구하고 전능한 존재만이 그 기준을 만족한다는 간단한 추론을 통해 바로 신만이 유일한 참된 원인이라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어트는 이러한 해석이 논증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며 논증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면서, 지향성 개념을 중심으로 말브랑슈의 여러 논증들을 연결하여 설득력 있게 재구성하려 한다. 본 논문의 4절에서는 이러한 어트의 해석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내들러(2011)의 비판을 살펴보고자 한다. 내들러는 말브랑슈의 ‘NNC 논증’은 말브랑슈의 다른 논증들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논증이라고 주장하며, 어트의 해석대로라면 말브랑슈의 논증은 유한한 정신이 참된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보이는데 실패한다고 비판한다.

이어서 5절에서는 말브랑슈의 ‘NNC 논증’을 독립적이고 단순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분석하는 내들러와 이석재의 해석을 비판할 것이다. 말브랑슈는 참된 원인의 조건으로서 필연성의 절대적인 성격보다는 실제로 효과를 일으키는 힘의 존재여부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참된 원인이 되기 위해서 힘을 필연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전제는 정당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절대적인 필연성에 대한 요구는 그에 대한 특별한 정당화 없이 전제로 삼을 경우 논증의 설득력을 크게 약화시킨다는 것이 5절에서의 주장이다.

6절에서는 앞서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NNC 논증’에 대한 필자 나름의 해석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말브랑슈가 물체들이나 유한한 정신들이 물체들의 움직임의 참된 원인이 아니라는 것과 신만이 물체들의 움직임의 참된 원인인 이유를, 각각의 실체의 관념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당화하려 한다는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실체들에 관한 지식의 성격에 대한 말브랑슈의 입장을 통해 뒷받침된다. 필자의 독해에 의하면, 유한한 정신이 물체의 움직임의 원인이 아닌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은 별도의 논증을 통해 확보되며, 이러한 각각의 논증들이 모두 모여서 유한한 실체는 물체의 운동의 참된 원인이 될 수 없고 오직 신만이 참된 원인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2. 필연성의 성격과 논증의 배경에 대한 내들러와 어트의 논의

말브랑슈는 전제 (i)에서 참된 원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원인과 결과 사이의 필연적인 연결을 제시한다. 내들러(2000)는 말브랑슈가 여기에서 인과 관계의 조건으로 논리적인 필연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인과적 필연성과 논리적 필연성에 대한 말브랑슈의 동일시는 오늘날에는 이상해 보이며, ……17세기의 데카르트주의자들에게도 이상해 보였을 것”이라 말한다. 이러한 생각의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배경이 되었던 11세기와 말브랑슈가 활동했던 17세기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인과적 혹은 자연적 필연성을 논리적 필연성으로부터 구별하는 분명하고 지배적인 철학적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자연의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 필연성”이란, “자연법칙들과 같은 어떤 필연적이지 않은 법칙들의 집합과 관련된 필연성”인 “법칙적 필연성”(nomological necessity)으로서, 이것은 그 자체로 필연적인 논리적 필연성과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힘을 가진 신이 다른 자연적 과정을 세울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⁵⁾

어트(2008)는 말브랑슈가 전제 (i)에서 인과 관계의 조건으로 논리적 필연성을 요구한다는 내들러의 해석에 동의하면서, 말브랑슈의 논쟁 상대자들에 대한 그의 이해에는 문제를 제기한다. 어트는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자신의 철학적 논제들에 대한 말브랑슈의 이해가 아닌 우리의 이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의 철학적 반대자들과 특별히 스킨라주의의 핵심적인 흐름은, 인과관계는 법칙적인 필연성이 아닌 논리적인 필연성을 요구한다고 실제로 주장했다.”⁶⁾

어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아퀴나스와 수아레즈는 공동작용론자들인데, 공동작용론에 따르면 신과 피조물 양자가 모두 원인으로 작용하여 그로부터 하나의 결과가 발생한다. 이들은, 신이 피조물을 통해서 결과를 일으키려 할 때에만 피조물들의 힘이 발휘됨에도 불

5) Ibid., 114.

6) Ott, 2008, 166.

구하고 피조물들이 진정한 인과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이 피조물의 힘들과 공동작용을 했는데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이에 더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서는 물체가 가진 힘이 발휘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예컨대 태운다는 것은 불의 본질이고, 불에는 태우는 힘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이 태운다는 것은 분석적인 참이다. 즉, 불에 타기 적합한 수동적 힘을 가진 물체를 태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이 아니다. 따라서 만약에 능동적인 힘과 그에 대응하는 수동적인 힘이 있고 신이 이 힘들과 공동작용한다면 그에 알맞은 사건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모순이며 따라서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⁷⁾

어트는 여기에 더해, 스콜라철학의 공동작용론에 따르면 필요한 요소들이 갖추어졌을 때에 심지어 신 자신조차도 자연적 원인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불속에 던져졌을 때 신은 불의 태우는 힘이나 그들의 살의 타는 힘을 없앤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동작용을 정지시켰다는 것이다.⁸⁾

이러한 어트의 주장은 내들리의 입장을 제대로 논박하고 있는가? 논리적 필연성과 구별되는 법칙적 필연성의 특징으로 내들리가 지적하는 것은 피조물들이 작용하는 방식, 즉 자연적인 법칙들이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것들이 아니고 다르게 만들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칙적 필연성 역시 일단 법칙이 전제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피조물들에게 인과적 힘이 있고 신이 그것들과 공동작용할 경우 그 힘들이 작용하여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필연적이라는 입장은, 여기에서 말하는 피조물들의 인과적 힘이 그 자체로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면, 내들리가 제시하고 있는 법칙적 필연성으로 설명되는 입장이다. 따라서 스콜라철학자들이 인과 관계에 요구한 필연성이 법칙적 필연성이 아닌 논리적 필연성이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스콜

7) Ibid., 168-171.

8) Ibid., 175-176.

라철학자들이 피조물들이 가진 힘을 신조차도 다르게 할 수 없는 종류의 것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어트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피조물들의 본성을 전제한 뒤에, 이로부터 발생하는 인과 관계의 논리적 구조만을 강조하고 있다. 어트는 이러한 인과 관계의 논리적 필연성이 신의 전능함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⁹⁾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서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사례에 대한 수아레즈의 설명을 근거로 제시한다. 이 설명에 따르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피조물의 힘들과 신의 공동작용이 모두 갖추어졌는데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므로, 이 경우에는 신조차도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신은 조건들 중 하나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설명에서 수아레즈가 신이 피조물의 본질을 다르게 만들 수 없었다고 생각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그는 단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 그 결과는 신조차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어트가 제시하고 있듯이, 수아레즈는 다니엘의 사례에서 신은 불의 태우는 힘이나 살의 타는 힘을 제거하지 않고 공동작용을 정지시킴으로써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한 이유가 신이 피조물의 힘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신은 “요구되는 조건들 중 하나”를 제거할 수 있었다.¹⁰⁾ 그리고 신이 피조물의 힘을 제거할 수 있다면, 이는 바로 내들러가 제시한 법칙적 필연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결국 어트는 스콜라주의에서 인과 관계의 조건으로 법칙적인 필연성이 아닌 논리적인 필연성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내들러가 주장하는 것처럼 말브랑슈는 자신의 논쟁 상대자들은 구별하고 있는 인과적 필연성과 논리적 필연성을 아무런 설명 없이 동일시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분명치 않다. 만약 11세기

9) Ibid., 174.

10) Ibid., 175-176.

와 17세기 사이에 인과적 필연성과 논리적 필연성에 대한 분명한 구별의 경향이 있었고 말브랑슈의 논쟁 상대자들이 그러한 구별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말브랑슈도 그러한 입장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만약 말브랑슈가 인과적 필연성과 논리적 필연성의 구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었다면, 말브랑슈 자신도 그 두 필연성을 구별하여 논증을 전개하거나, 적어도 그 두 필연성을 동일시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의 논쟁 상대자들은 전제 (i)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결국 말브랑슈의 논증은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말브랑슈가 인과적 필연성과 논리적 필연성을 동일시하고 있었다는 내들러의 주장에는 정당화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내들러는 “말브랑슈에게서 인과의 핵심에 있는 필연성은 논리적인 것이 분명하다”¹¹⁾고 주장할 뿐, 그의 주장의 근거를 따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내들러는 말브랑슈가 요구하는 필연성의 성격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NNC 논증’의 정당화 논리를 분석한다. 한편, 이석재(2008)는 말브랑슈가 전제 (i)에서 요구하는 필연성을 논리적인 필연성으로 분석하지 않는다. 필자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말브랑슈가 전제 (i)에서 요구하는 필연성의 성격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전제 (ii)를 정당화하는 논리에 대한 내들러와 이석재의 해석의 차이를 가져온다. 다음 절에서는 ‘NNC 논증’의 정당화 논리에 대한 두 사람의 입장을 비교하여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3. 필연성의 성격과 논증의 정당화 구조에 대한 내들러와 이석재의 논의

내들러는 말브랑슈가 전제 (i)에서 참된 원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원인과 결과 사이의 논리적인 필연성을 요구한다는 자신의 해석

11) Nadler, 2000, 114.

을 바탕으로, 신만이 그러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신만이 전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전능하지 않은 유한한 실체들에 대해서는 그것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하지만, 전능한 신이 어떤 것을 의지했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의 의지만이 전제 (i)에서 요구한 필연성의 조건을 만족시킨다.¹²⁾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만약 S가 전능한 존재라면, S가 x를 의지할 때 x가 도출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필연적이다. 이것은 그저 전능함의 의미이다. 반면에, 만약 S가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면, 단지 S가 x를 의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x가 도출되는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오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그저 비-전능하다는 것의 의미이다.¹³⁾

이석재(2008)도 내들러와 마찬가지로 신의 의지와 그것의 결과 사이에 있는 필연적인 연결에 대한 정당화를 신의 전능함을 통해 설명한다. 그런데 그는 유한한 실체들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이 없다는 주장의 정당화에 대해서는 내들러와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 그는 말브랑슈가 자연적인 원인과 결과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이 부재하는 이유를 신의 간섭의 예를 통해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전능한 신이 언제든지 자연의 법칙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원인에는 그 결과와의 필연적인 연결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¹⁴⁾

내들러(2011)는 이러한 이석재의 해석을 비판한다. 그는 먼저, 이석재와 같이 말브랑슈를 해석하는 것은 그와 유사한 주장을 했던 선대 철학자들과 말브랑슈를 다르게 읽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이석재의 해석에는 문헌상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말브랑슈는 그의 논증에서 명시적으로도, 심지어 함축적으로도 신의 간섭의 가능

12) Ibid.

13) Nadler, 2011, 183.

14) Lee, 2008, 544.

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¹⁵⁾

먼저 이석재가 말브랑슈를 그와 유사한 주장을 펼친 선대 철학자들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을 살펴보자. 내들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말브랑슈보다 앞선 시대의 기회원인론자인 알-가잘리의 입장에서는, 신이 자연에 간섭할 수 있고 기적들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자연의 사물들 사이에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연결이 없기 때문이었다. 신의 전능성조차도 논리적인 가능성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가잘리는 자연에 필연적인 연결이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신의 간섭의 가능성을 사용할 수는 없었다.¹⁶⁾

여기에서 내들러의 주장은, 말브랑슈도 알 가잘리와 마찬가지로, 신이 논리적인 필연성에 따른 결과를 막을 수는 없으므로, 자연적인 원인들과 그것들의 결과들 사이에 이러한 필연적인 연결이 없다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신이 다른 결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제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비판은, 말브랑슈가 자연적 원인들과 그 결과들 사이에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그것을 반박하려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말브랑슈가 알 가잘리와 마찬가지로 두 필연성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내들러의 생각을 공유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관계가 자연 내에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내들러는 말브랑슈가 전제 (i)에서 요구하는 필연성이 논리적 필연성이라는 자신의 전제를 이석재가 공유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다음은 이석재의 입장에 대한 내들러의 요약이다.

……두 유한한 사건들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이 부재하는 이유는 신적인 간섭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규칙적이거나 법칙적으로 필연적인 연결이 두 유한한 사건들 사이에 있어도, 전능한 신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자연의 법칙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사태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는 결코 논리적으로

15) Nadler, 2011, 186.

16) Ibid.

필연적인 연결이 있을 수 없다.¹⁷⁾

이것은 다소 부정확한 요약이다. 우선 이석재는 'NNC 논증'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면서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연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유한한 실체들에게 “규칙적”이든 “법칙적”이든 “필연적인 연결”이 있다고 하지 않았다. 단지 유한한 원인들로부터 나오는 결과는 “필연적이지 않다”고 했을 뿐이다.¹⁸⁾ 즉, 이석재는 말브랑슈가 피조 세계에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상대로 논증하고 있다는 내들러의 전제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는 신의 간섭의 가능성을 통해 자연적 원인과 그 결과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이 없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내들러는 17세기의 철학자인 말브랑슈를 11세기의 철학자인 알 가잘리와 같은 입장으로 두고 해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만약 말브랑슈가 내들러가 해석한 것과는 다르게 인과적 필연성과 논리적 필연성의 구분을 의식하고 있었다면, 말브랑슈의 입장을 인과적 필연성과 논리적 필연성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선대의 철학자들의 입장과 동일하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 여기에 더해서 내들러가 주장한대로 말브랑슈의 논쟁 상대자들이 인과적 필연성과 논리적 필연성을 구분하고 있다면, 말브랑슈는 자연적 원인들이 전능한 신조차도 다르게 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성격의 것이라는 입장을 상대로 논증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고려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내들러가 이석재에 대한 자신의 비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말브랑슈가 인과적 필연성과 논리적 필연성을 동일시켰다는 것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석재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문헌상의 근거가 없다는 내들러의 비판을 살펴보자. 이러한 비판은 다소 이상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말브랑슈는 'NNC 논증'을 제시한 후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유한한 정신이 의지한 것과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신이 의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고, 이석재는 그의 논문에서 이것을 인용하며 자

17) Ibid.

18) Lee, 2008, 544..

신의 해석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들러는 이것이 말브랑슈가 ‘NNC 논증’을 정당화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는 ‘NNC 논증’은 말브랑슈의 다른 논증들과는 독립적인 별개의 논증이라고 주장한다.¹⁹⁾ 이석재가 제시한 본문은 말브랑슈가 신이 피조물에게 자신의 힘을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모순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맥락에서 예로 등장한다. 내들러는, 이러한 가정은 ‘NNC 논증’의 정당화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가정이며, ‘NNC 논증’과는 다른 논증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 제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능함과 비전능함의 차이에 대한 자신의 간단한 독해만으로도 논증은 충분히 이루어지며, 논증을 설득력 있도록 만들기 위해 신의 간섭의 가능성에 대한 전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²⁰⁾ 즉 내들러는 ‘NNC 논증’을 최대한 단순하고도 독립적인 논증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석재와 내들러는 말브랑슈가 ‘NNC 논증’에서 요구하는 필연성의 성격과 논증의 정당화 구조를 다르게 분석하고 있지만, 둘 모두 신만이 필연성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이 신의 전능성을 통해 간단히 정당화되는 것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어트는 ‘NNC 논증’에 대한 이러한 단순한 분석은 논증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다른 논증들과 관련지어서 논증을 보다 설득력 있게 만들고자 한다. 내들러는 어트의 이러한 해석을 비판하는데, 다음 절에서는 논증에 대한 어트의 해석과 그에 대한 내들러의 비판을 살펴볼 것이다.

4. 논증의 정당화 구조에 대한 어트의 해석과 그에 대한 내들러의 비판

내들러와 이석재는 모두, ‘NNC 논증’에서 전제 (ii)의 정당화는 신

19) Nadler, 2011, 185.

20) Ibid.

의 전능함과 피조물의 유한함으로부터 간단하게 도출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어트는 만약 말브랑슈의 논증이 이와 같이 단지 전능함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떤 물리적 존재도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사소하게 참(trivially true)이고 ……어떤 유한한 정신도 원인이 아니라는 것도 사소한 참에 가깝다”²¹⁾고 말한다. 어트의 문제제기는,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말브랑슈는 ‘NNC 논증’에서 전능한 존재만이 진정한 원인이라는 전제를 처음부터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석할 경우 논증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는 그의 논적인 “수아레즈나 아퀴나스에게는 명백하지 않은 것”²²⁾일 뿐 아니라, 물체가 원인이 될 수 없다거나 유한한 존재가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어트는 이 논증을 말브랑슈의 다른 논증들과 연결하여 재구성함으로써 더욱 설득력 있는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어트에 따르면 신의 의지와 그 결과 사이의 필연적인 연결의 근거는 의지의 지향성이다. 그는 말브랑슈가 스콜라주의 원인 개념의 핵심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 기계론적인 맥락에서 신의 의지만이 이 원인 개념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스콜라주의에서 힘은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를 향한 본질적인(내재되어 있는) 방향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어트에 의하면 말브랑슈는 데카르트를 따라서, 물체에 힘을 귀속시키는 것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방향성이란 지향성으로서 오직 정신만이 가지는 특성이기 때문이다.²³⁾

따라서 그에 의하면 오로지 의지만이 원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올바른 논리적 유형이다. 의지 행위와 의지의 내용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의 의지의 내용은 곧 의지의 결과이기에 신의 의지와 그 결과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결이 있다.²⁴⁾

그렇다면 유한한 정신이 참된 원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

21) Ott, 2008, 177.

22) Ibid., 167.

23) Ibid., 167.

24) Ibid., 180.

가? 그 이유는 유한한 정신은 물리적 사건들의 참된 원인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소위 ‘지식 논증’(epistemic argument)을 끌어온 것이다. 즉, 예를 들어 정신이 신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것은 그 사건에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사건들을 의지해야 하는데, 이 선행하는 사건은 뇌에서의 사건을 포함한다.”²⁵⁾ 따라서 어트는 이 점에 있어서 유한한 정신이 원인이 될 수 없는 주된 이유는 “전능함의 결여가 아닌 전지함의 결여”²⁶⁾라 말한다.

이러한 어트의 입장에 대해 내들러는 ‘NNC 논증’과 여러 논증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우 흥미로운 해석이라 말한다. 그러나 내들러는 말브랑슈에게서는 별개의 것인 논증들을 어트가 뒤섞고 있다고 비판한다. ‘NNC 논증’은 ‘지식 논증’과는 별개의 논증이며, 유한한 정신이 인과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논증이라는 것이다. 내들러는 말브랑슈가 어디에서도 명시적으로 ‘NNC 논증’을 물체들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해 내들러는, ‘NNC 논증’은 유한한 정신이 물체의 운동의 원인이 아닌 것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을 위한 것인데, 어트가 여기에 인식적인 요구를 포함 시킴으로써, 요구되는 지식을 가졌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그는, 어트가 피조물이 전지함을 결여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이 어째서 단지 그와 관련된 일정 정도의 지식이 아니고 인간에게 원리적으로 불가능한 전지함인지를 보여야 하는데 어트는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²⁷⁾

이와 같이 말브랑슈의 ‘NNC 논증’에 대한 분석은 해석자들 사이에서 크게 엇갈린다. 인과 관계에서 요구되는 필연성의 성격은 무엇인지, ‘NNC 논증’과 말브랑슈의 다른 논증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해석자들은 각각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논증의 정당화 구조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결국, 어떤 해석이

25) Ibid.. 168.

26) Ibid.. 183.

27) Nadler, 2011, 185.

옳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전제들 중에 어떤 것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NNC 논증'이 필연성의 성격과 신의 전능함만을 가지고 간단하게 결론을 끌어낸다는 해석이 설득력이 부족하며, 논증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말브랑슈의 여러 논증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어트의 입장에 가깝다. 그러나 필자는 물체가 참된 원인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어트의 설명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내들러가 비판한 바와 같이 그의 해석이 유한한 정신이 물체의 운동의 원인이 아닌 것이 필연적이라는 점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하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의 남은 부분에서는 각각의 입장을 비판하고 'NNC 논증'에 대한 필자 나름의 해석을 제시할 것이다.

5. 필연성의 성격과 힘

내들러와 이석재는 'NNC 논증'에서 말브랑슈가 처음부터 절대적인 필연성을 인과 관계의 필요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특히 내들러는 이 필연성이 논리적인 필연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필연성의 요구는 말브랑슈의 논쟁 상대자들에게 이상하게 보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들러의 주장대로 말브랑슈가 인과적 필연성과 논리적 필연성을 혼동하거나 별다른 설명 없이 뒤섞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게다가 말브랑슈는 논리적인, 혹은 절대적인 필연성을 처음부터 인과 관계의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닌 듯하다.

내들러는 말브랑슈의 논쟁 상대자들이 인과적 필연성을 법칙적 필연성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말브랑슈 역시 자연적 원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지배하는 법칙을 인정한다(SAT. 6.2.3, N95). 그리고 신이 기존의 질서와 다른 질서를 세웠을 가능성도 고려한다(SAT. 6.2.3, N96). 그렇다면 말브랑슈와 그의 논쟁 상대자들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말브랑슈의 논쟁 상대자들

은 법칙적 필연성에 따른 인과를 피조물들 사이의 참된 인과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말브랑슈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즉, 스콜라주의의 입장에서는, 피조물들의 힘이 실재하고 이것들이 참된 원인으로 간주되는 반면에, 말브랑슈는, 유한한 피조물들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으며 따라서 피조물은 참된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쟁점은 자연적 원인들이 그것들의 결과와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는지의 여부가 아니고, 피조물들이 실제로 효과를 일으키는(efficacious) 힘을 가지는지의 여부이다.

이 점은 말브랑슈가 분명히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피조물이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힘으로 어떤 효과를 일으킨다면, 이 경우 이 피조물은 그 결과의 참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말브랑슈는 그의 여러 논증들에서 피조된 실체에 힘이 있는지를 따지고 있으며, 신이 피조물에게 이러한 힘을 부여할 가능성을 검토하고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SAT. 6.2.3, N96-97).

말브랑슈는 그의 글에서, 피조물의 정신이 자신의 신체를 움직이기를 의지하고 동시에 신도 같은 것을 의지할 때, “이 둘 가운데 어떤 것이 이 신체의 움직임의 참된 원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효과를 일으키는지를 아는 것이 필수적”(SAT. 6.2.3, N96)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결과에 선행하는 것을 그것의 참된 원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SAT. 6.2.3, N97)고 주장한다. 즉, 어떤 특정한 사건 뒤에 늘 규칙적으로 다른 사건이 따라온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원인인 것은 아니고, 실제로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참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결국 피조물이 참된 원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의 결과와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피조물이 실제로 효과를 일으키는 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신이 다른 자연 법칙을 세울 수 없었고 현재의 자연법칙에 따라서 한 자연적 원인에 이어 그것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연적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에 자연적 원인으로부터 기대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연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브랑슈는 자연적 원인은 참된 원인이 아닌 기회원인일 뿐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자연적 원인에 따라 물체가 움직이도록 실제로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신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신이 자연 법칙을 다르게 만들 수 있었는지 여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들러와 이석재 역시 참된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를 일으키는 실제적인 힘 혹은 본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내들러는 이것이 말브랑슈와 그의 논쟁 상대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전제라고 말한다.²⁸⁾ 그렇다면 그들은, 참된 원인이 되기 위해서 결과를 일으키는 힘 또는 본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브랑슈는 여기에 더해 절대적인 필연성까지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NNC 논증’에서는 이 조건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말브랑슈가 다른 논증에서는 피조물들이 힘을 가졌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논증을 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NNC 논증’에서는 필연성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논증을 하고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말브랑슈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거나, 힘을 가졌다면 그 효과가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주장을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는다. 만약 말브랑슈가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연적인 원인과 그 결과 사이에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연결이 없다 하더라도, 피조물이 힘을 가지고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석재의 해석에서는, 신이 간섭하여 자연적 원인으로부터 기대되는 결과와 다른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과의 원인이 피조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조물이 의지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조물이 자신의 힘을 발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내들러의 해석의 경우, 단지 전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즉 어떤 결과든 의지한 것을 필연적으로 일으킬 수 있지는 않다는 이유로,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도 일으킬 수 없다는 결론이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 전능하지 않다는 것이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브랑슈가 논증의 첫 단계에서 인과 관계의 조건으로 절대적인 필연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논증이

28) Nadler, 2000, 115.

아무런 설득력도 갖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말브랑슈의 ‘NNC 논증’이, 단순히 인과 관계가 절대적인 필연성을 요구한다는 전제와 신만이 전능하다는 전제를 이용해서 곧바로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라는 해석은 불만족스럽게 여긴다. 그보다는 오히려 말브랑슈가 제시하는 다른 여러 논증들을 함께 고려해야만 논증이 완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절에서 이러한 필자의 해석의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6. ‘필연적 연결의 부재’(No Necessary Connection) 논증

논문의 서두에서 인용한 ‘NNC 논증’은 간단하게 세 문장으로 제시되고 있다. 필자의 독해에 따르면 이 세 문장은 말브랑슈가 앞서 제시한 보다 긴 서술의 요약이다. 말브랑슈는 그의 글에서 오로지 신만이 참된 원인이며 모든 자연적 원인들은 단지 기회 원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뒤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물체도 스스로 움직일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정신의 관념들과 물체의 관념들, 이렇게 오직 두 종류의 관념들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종류의 관념들만을 따라서 추론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물체들의 관념이 우리에게 그들이 스스로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므로, 그것들을 움직이는 것은 정신이라고 결론지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유한한 정신들의 관념을 시험해볼 때, 우리는 그들의 의지와 어떤 물체의 운동 사이에서도 아무런 필연적인 연결도 보지 못한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그런 것이 없으며, 또한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찬가지로 ……피조된 정신이면서 참되고 주된 원인으로서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없다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신의 관념, 즉 무한히 완벽하고 결과적으로 전능한 존재의 관념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우리는 그의 의지와 모든 물체들의 운동 사이에 그러한

연결이 있어서 그가 어떤 물체가 움직이기를 의지했는데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사물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느끼는 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말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오로지 그의 의지만이 물체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SAT. 6.2.3, N94)

여기에서 말브랑슈는 물체와 피조된 정신은 참된 원인이 될 수 없으며 오로지 신의 의지만이 참된 원인으로서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관념이 물체와 정신뿐이며, “이 두 관념만을 따라 추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나서 각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들을 검토함으로써 그것들이 물체를 움직이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시험한다. 즉, 그는 물체의 운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후보로 물체와 정신을 제시한 뒤에, 각각에 대해서 그것이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물체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물체들의 관념”을 통해서이다. 따라서 물체의 운동의 원인의 후보로는 정신만이 남게 된다.

정신이 물체의 운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시험할 때, 정신의 의지와 물체의 운동 사이의 “필연적인 연결”이 기준으로 등장한다. 그러니까 ‘NNC 논증’에서의 “필연적인 연결”은 정신이 물체의 운동의 원인이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고, 또한 이 연결은 의지와 물체의 운동 사이에 존재해야 한다. 여기에서 유한한 정신이 물체를 움직이는 원인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모든 유한한 정신들의 관념을 시험해볼 때” 그 의지와 물체의 운동 사이의 필연적인 연결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브랑슈는 유한한 정신에는 그러한 연결이 없을 뿐 아니라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본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본다”는 말의 의미는, 감각적인 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에 의한 추론을 통해 이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한한 정신의 관념을 검토할 때 말브랑슈는 드디어 “필연적인 연

결”을 발견한다. 이 “필연적인 연결”의 성격은, 신이 어떤 물체가 움직이기를 의지했는데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즉 모순일 정도로 절대적인 필연성이다.

왜 신이 의지했는데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생각 불가능할까? 그것은 신의 전능함 때문이다. 신의 의지와 의지한 사건의 발생 사이의 관계는, 전능한 존재의 의지와 그가 의지한 사건의 발생 사이의 관계이다. 그런데 어떤 존재자가 의지한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존재자가 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함축한다. 결국, 전능한 존재자가 의지한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전능한 존재자가 전능하지 않은 존재자라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신이 어떤 물체가 움직이기를 의지했는데 그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인 것이다. 말브랑슈는 이와 같이 신의 전능성에 의존해서 신의 의지가 물체의 운동의 참된 원인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NNC 논증’에서 정신이 신의 의지와 그것의 결과 사이에서 어떤 종류의 필연성을 어떻게 발견하는지가 드러났다. 신의 의지와 그것의 결과 사이에는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연결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신의 전능함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결과적으로 도출되는 것이며, 인과관계가 충족시켜야 할 조건으로서 처음부터 제시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물체나 유한한 정신의 관념이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은 어떻게 끌어낼까?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말브랑슈는 신의 관념을 검토하기 이전에 물체와 유한한 정신의 관념들 각각을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결론을 끌어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물체와 정신 각각을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왜 말브랑슈는 이러한 순서로 검토를 하는가?

말브랑슈는 우리가 정신 혹은 물체에 대한 지식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말브랑슈는 그의 책의 다른 부분에서 우리는 물체들과 그것들의 속성들에 대해서는 관념을 통해 완전한 지식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의 연장에 대한 관념은 연장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속성들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한다(SAT. 3.2.7, N47). 따라서 말브랑슈는 이러한 “물체들의 관념”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SAT.

6.2.3, N94).

말브랑슈에 의하면 정신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완전하지 않다. 그는 “우리는 그것을 오직 의식을 통해서만 알고, 이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하다”고 말한다(SAT. 3.2.7, N47). 그러나 말브랑슈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의식 혹은 내적 감각을 통해서 아는 것은, 그것의 불멸성과 영적인 속성, 자유, 그리고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여러 다른 속성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SAT. 3.2.7, N49). 그에 의하면 우리가 의식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대해 갖는 지식은 불완전하지만 틀린 것은 아니고,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물체와 혼동하지만 앎다면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가 의식을 통해 물체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은 불완전할 뿐 아니라 틀린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물체의 관념을 통해 알게 되는 물체에 대한 지식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SAT. 3.2.7, N49)

말브랑슈는 정신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성격을 고려하여 유한한 정신이 참된 원인이 될 수 없다는 논증을 제시한다. 그는 유한한 정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 정신들의 의지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물체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 나에게서 매우 확실해 보인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팔을 움직이려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팔의 움직임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결이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팔을 움직일 수 있는가? 그것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동물 정기를 가지고, 특정한 신경들을 통해 특정한 근육들을 향해 그것들을 팽창시키고 수축시키도록 그것들에게 보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것들에 접해있는 팔이 움직이기 때문이다.(SAT. 6.2.3, N95)

여기에서 말브랑슈는 우리가 팔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팔의 움직임에 선행하는 신경 전달을 어떻게 일으켜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 팔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이러한 지식이 없으므로, 우리는 팔

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 말브랑슈의 주장이다. 여기에서 말브랑슈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다. 첫째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의지할 수 없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지 않은 것의 원인이 아니다. 이러한 전제들을 바탕으로, 말브랑슈는 우리의 팔이 움직이게 되는 과정을 물체들의 차원에서 고찰함으로써 그것들이 우리의 정신이 의지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의식을 통해 물체에 대해 알게 되는 틀린 생각들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렇다면 말브랑슈는 우리에게 충분한 해부학적 지식이 있다면 우리가 팔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충분한 지식이 있다면 우리의 의지와 신체의 움직임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될 텐데, 말브랑슈가 그런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다음 인용문을 보자.

사람이 건물을 뒤집어엎을 수 없다 해도, 적어도 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행해져야 하는지는 알고 있다. 그러나 동물 정기를 통해서 자신의 손가락 중 하나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팔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SAT. 6.2.3, N96)

여기에서 말브랑슈는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를 아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 몸의 움직임과 관련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단지 그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지식은 있지만 능력은 없을 수 있다.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을 수 있다. 그런데 말브랑슈에 따르면 만약 지식이 없다면, 능력도 있을 수 없다. 말브랑슈는 여기에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지식이 없다는 사실을 통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말브랑슈는 이와 같은 ‘지식 논증’을 제시한 이후에, 사람이 자신의 팔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자신에게는 “분명해 보이며, 이것들이 비록 아마도 감각하기만 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생각하고

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분명해 보일 것”이라 덧붙인다.

그런데 이 절의 맨 처음에 인용한 인용문의 이 대목에서 말브랑슈는 유한한 정신의 관념에서는 필연적인 연결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본다”고 말한다. 이것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말브랑슈는 ‘지식 논증’을 제시한 이후에 곧바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사람은 그들이 그들의 신체에 일으키는 동작의 참된 원인이 아닐 뿐 아니라, 그들이 참된 원인일 수 있다는 것에는 심지어 어떤 (강하게 말하자면)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참된 원인이란 그 원인과 그것의 결과 사이에서 정신이 필연적인 연결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신은 오로지 무한히 완전한 존재의 의지와 그것의 결과들 사이에서만 필연적인 연결을 발견한다. 그러므로 오로지 신만이 참된 원인이며, 신만이 물체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다. 나는 더 나아가서 (a) 신이 물체를 움직이는 그의 힘을 사람이나 천사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생각 불가능하다는 것과, (b) 우리의 팔을 움직이는 우리의 힘이 참된 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신이 정신에게 창조하고, 소멸시키고, 또 모든 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역시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주장하려 한다. 요컨대 그는 그들이 전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SAT. 6.2.3, N96, 강조는 인용자의 것)

본 논문의 서두에서 제시했던 ‘NNC 논증’의 서술은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다. 유한한 정신이 신체의 움직임의 참된 원인일 수 있다는 생각, 즉 유한한 정신과 그 정신이 신체에 일으키는 동작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는 모순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한 뒤에 곧바로 등장한다. 필자는 여기에서 제시된 ‘NNC 논증’의 서술은, 앞서 제시했던 논증을 간단하게 재서술한 것이라고 본다. 유한한 정신에서는 그 의지와 물체의 움직임 사이에서 필연적인 연결을 발견할 수 없었고, 무한한 정신인 신에게서만 이러한 연결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말브랑슈는 유한한 정신에서 이런 필연적인

연결을 발견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런 연결이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주장했었다. 그런데 아직 이 문제는 해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아직 유한한 정신이 참된 원인이 되는 것이 필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말브랑슈는 ‘NNC 논증’을 재서술한 직후에 “더 나아가서” 피조물이 신의 힘을 전달받을 수 있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을 보이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또한 유한한 정신이 참된 원인이 되는 것이 필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직 정당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인용된 내용을 통해, 말브랑슈가 제시하는 참된 원인의 조건이 힘을 가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말브랑슈는 인용문의 앞부분에서는 유한한 정신인 사람이 참된 원인일 수 있다는 것에 모순이 있다고 말하고, (a)에서는 신이 자신의 힘을 유한한 정신인 사람이나 천사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모순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서술을 동일한 것에 대한 서술로 본다면, 만약 신이 피조물에게 자신의 힘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 힘을 전달받은 피조물은 참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의 힘을 전달받을 수 있다면, 그 힘을 전달받은 정신의 의지와 의지된 힘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결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능한 존재가 아니더라도 만약 신의 힘을 전달받을 수 있다면, 참된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전제 (i)에서 말브랑슈가 처음부터 절대적인 필연성을 기준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만약에 말브랑슈가 (i)을 제시할 때 절대적인 필연성을 조건을 요구한 것이었다면, 단 하나의 무한한 정신만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은 보다 단순한 과정을 통해 확보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피조물이 참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모순이라는 것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참된 원인의 자격을 갖춘 단 하나의 원인이 있고 그것의 의지와 의지의 결과 사이에 절대적인 필연성이 있다는 것이 결국 확보되긴 하지만, 말브랑슈가 논증의 처음부터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유한한 정신이 참된 원인이 될 수 없는 이유, 즉 신의 힘을 전달받을 수 없는 이유를 말브랑슈가 어떻게 제시하는지를 살

퍼보도록 하자.

신은 작용을 위해 어떤 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떤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가 의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가 의지했는데, 그가 의지한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힘은 그의 의지이다. 그리고 그의 힘을 전달한다는 것은 그의 의지의 효과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효과를 사람이나 천사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사람이나 천사가 이 물체나 저 물체가 움직이기를 의지할 때 그것이 실제로 움직이도록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SAT. 6.2.3, N96)

이 논증은 명백히 공동작용론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여기에서 논의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²⁹⁾ 기회원인론과 공동작용론은 단순보존론과 함께 자연에서의 신과 피조물의 작용의 성격에 대한 대표적인 입장들이었다. 이 중 단순보존론은 신의 인과적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다. 단순보존론에 의하면 신은 피조된 실체들의 존재를 떠받치고 있으며, 피조물들은 각각의 고유의 인과적 힘으로 자연에서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이 때 신의 인과적 기여는 간접적인 것이다. 이러한 단순보존론은 대부분의 그리스도교인 학자들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신이 자연에서 궁극적인 첫 번째 원인이라면 동시에 모든 사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는 기회원인론자들과 공동작용론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입장은 신의 직접적인 작용 없이는 어떤 사건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 두 입장 사이의 차이점은 기회원인론자들이 피조물에게는 어떠한 인과적 힘도 없으며 신의 인과작용만이 진정한 인과 관계의 형태라는 입장인 것에 반해서, 공동작용론자들은 피조물에게 진정한 인과적 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공동작용론에서는 자연적 결과가 발생할 때, 이 결과는 신과 피조물이 공동으로 힘을 발휘한 결과이다.

29) 본 문단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Freddoso, 1994, 132-134 참조.

인용문에서 말브랑슈는 신은 결과를 일으키기 위해 단지 의지하기만 하면 충분하며 어떤 도구도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면서, 피조물에게 힘이 있어서 신이 그 힘을 통해 일한다는 생각을 비판한다. 말브랑슈와 공동작용론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전제, 즉 모든 사건에서 신이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전제에 신의 의지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조건이라는 주장이 결합되어 피조물의 힘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신의 힘을 전달하는 것은 신의 의지의 효과를 전달하는 것이라 말한다. 그런데 어째서 신의 힘을 전달하는 것이 신의 의지의 효과를 전달하는 것일까? 신이 피조물에게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힘을 줄 수는 없는가? 이러한 가능성은 신의 힘이 곧 신의 의지라는 말브랑슈의 주장으로 인해 배제된다. 신의 힘이 곧 신의 의지라면, 그 힘이 발휘된다는 것은 곧 신이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의 힘을 전달한다는 것은 신의 의지의 효과를 전달하는 것이고, 인간의 신체가 그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이유는, 그가 의지하는 대로 신체가 움직이기를 신이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체가 움직이도록 실제로 결과를 일으키는 힘은 피조물이 아닌 신에게 있기 때문에, 신이 참된 원인이고 피조물은 기회원인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이로부터 말브랑슈는 (b)를 끌어낸다. 만약 인간의 정신이 어떤 것을 의지할 때 신이 그것을 일으키기를 의지한다고 해서 그것을 두고 인간에게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신은 인간이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무화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의지할 수 있으므로, 신이 인간을 전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SAT. 6.2.3, N97).

7. 결론

말브랑슈의 ‘NNC 논증’은 매우 짧고 간단한 논증처럼 보이지만,

그를 둘러싼 해석상의 논점들이 많이 존재한다. 'NNC 논증'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말브랑슈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끌어내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제시되어 왔으며, 학자들 사이에 해석상의 불일치들이 많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른 학자들 사이에 있어왔던 해석상의 불일치들을 검토하며 각각을 평가하고, 필자 나름의 해석을 제시하였다. 각 학자들의 해석에 대해 입장을 같이하는 부분도 있었고 비판을 한 부분도 있었는데,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다소 복잡했던 논점들을 큰 틀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내들리와 이석재는 논증을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진 독립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두 사람 모두 전제 (i)에서 인과적 필연성의 조건으로 절대적 필연성을 미리 요구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하고, 전능한 존재만이 그 기준을 만족한다는 간단한 추론을 통해 바로 신만이 유일한 참된 원인이라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필자의 해석에 의하면, 말브랑슈는 절대적인 필연성을 처음부터 인과 관계의 기준으로 놓고 그에 적합한 대상이 무엇인지 추론하는 방식으로 논증을 전개하지 않았다. 인간이 각각의 실체들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말브랑슈의 견해를 바탕으로 그의 논증 전체를 살펴볼 때, 말브랑슈는 물체의 운동의 원인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실체들 각각에 대한 논증들을 제시하고 그를 통해 신만이 유일한 참된 원인이라는 결론을 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트는 말브랑슈의 여러 논증들을 하나의 줄기로 꿰려 시도하는데, 그 중심에는 지향성이 있다. 필자는 'NNC 논증'과 말브랑슈의 여러 논증들이 관련이 있다고 보는 점에서 어트와 입장을 같이한다. 그러나 어트가 주장하듯이 물체가 단지 지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원인의 후보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관념들에 대한 말브랑슈의 검토 과정을 보면, 말브랑슈는 물체의 모든 관념들을 검토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것이 지향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원전 번역본

Nicolas Malebranche, *Philosophical Selections*, ed. by S. Nadler, Hackett, 1992. [N]

2. 이차문헌

Freddoso, Alfred, “God’s General Concurrence with Secondary Causes: Pitfalls and Prospects,” *American Catholic Philosophical Quarterly*, 67(ii), 1994. pp.131-156.

Lee, Sukjae, “Necessary Connections and Continuous Creation: Malebranche’s Two Arguments for Occasionalism,”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October 2008), pp.539-565.

Nadler, S. “Malebranche on Causation”.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Malebranche*. ed. Steven Nadl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_____, “Postscript to “No Necessary Connection’: The Medieval Roots of the Occasionalist Roots of Hume”, in *Occasionalism: causation among the Cartesians*,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p.183-188.

Ott, W. “Causation, Intentionality, and the Case for Occasionalism”. *Archiv für Geschichte der Philosophie* 90 (ii), 2008.